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책임작성 | 남윤형 연구위원(02-707-9834, yhnam@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인구구조 변화와 소상공인 고령화
3.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4. 정책 시사점 - 소상공인 대응방향

| 요약

-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
 -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709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28년 이후 인구가 감소할 전망
 -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을 초래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57천명)와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9,551천명)의 은퇴 및 고령화 진행으로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
- 고령화 중심의 인구구조 변화는 소상공인에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
 - 2018년 50대이상 소상공인의 비중이 67.6%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교육수준도 높아지고 있음(대졸이상 36.4%)
 - 고령화로 인해 생산성은 낮아지나, 교육컨설팅과 디지털화신기술 등 새로운 기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높음
 - 그러나, 현재 고령 소상공인들은 소규모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미래에 대한 준비여력이 부족한 상황

■ 인구절벽 현상에 따라 소상공인 고객들의 소비여력 감소가 예상됨

- 낮은 소득과 높은 부채로 인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2015년 우리나라 65세 초과 연령집단의 빈곤율은 45.7%로 같은 연령대 OECD국가 평균(13.0%)보다 약 3.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OECD)
- 고령층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평균의 73.3% 수준으로, 고령층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 분야에의 소비감소가 예상됨
 - 고령층의 소비지출 감소는 소상공인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도·소매업, 음식·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 등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은 소비증가와 함께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

-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이 취급 가능한 실버산업 분야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
 - 여가활동부문, 재가서비스, 의류식품생활용품서비스와 같은 노인용품 등 부문들은 소상공인도 참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고령층의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뉴 실버(New Silver)세대를 대상으로 접근성 강화 및 요구충족을 위한 변화관리 노력 필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교통, 음식·숙박 등 고령 친화적 산업으로 창업 및 사업전환을 유도할 필요
- 쉐어인ship, 주방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 플랫폼 사업자의 참여유도 및 협업사업 등을 통한 영업비용 절감노력 필요
- 소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객들과의 접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소상공인 간 매칭시스템(market-place) 마련
- 보행약자 행동제약을 배려한 상권개발, 디지털기술 활용 등 고객 접근성 제고
- 인구절벽에 따른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교육컨설팅, 사회적·신체적 안전망 확보 등 고령화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미래준비도 필요

1.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¹⁾

-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709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2010년 인구 49,554천명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CAGR) 0.53%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2018년 기준 0.977명인 합계출산율²⁾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2028년 이후 인구가 감소할 전망
- 한편,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인구절벽을 고려해야 할 상황
 -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³⁾
 - 고령화사회 진입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일본(24년), 미국(71년), 프랑스(126년)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원인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인구절벽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인구감소·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 분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마련이 요구됨

- 인구구조의 변화는 소상공인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고령화도 촉진될 전망
- 또한, 인구절벽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고령화로 소비규모 및 구매행태 또한 변화될 전망
- 이에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소상공인분야에 미칠 영향과 정부 및 소상공인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통계청, KOSIS 100대 지표 - 인구가구

2) 한 여성의 가임기간(15세~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3)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7%이상, 고령사회(Aged Society) 14%이상,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UN기준)

2. 인구구조 변화와 소상공인 고령화

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인구절벽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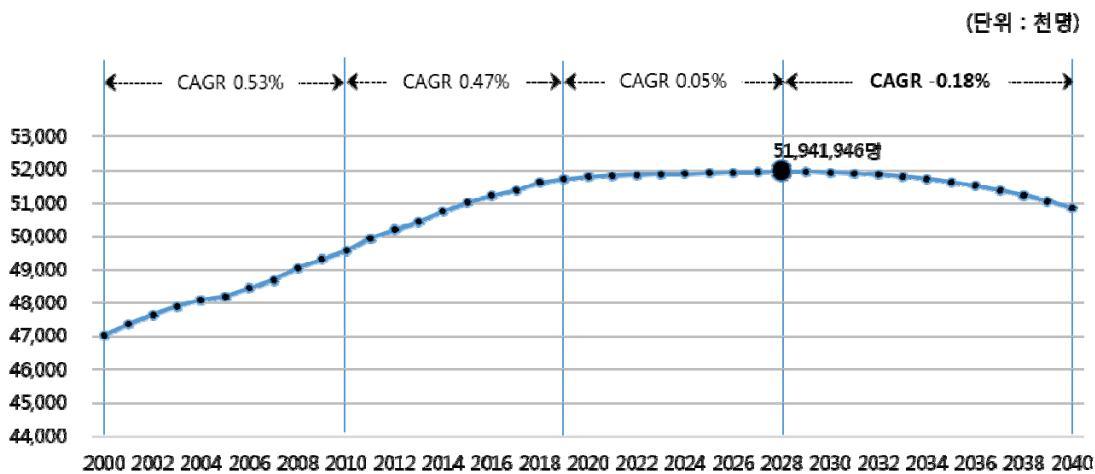
■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낮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8년 이후 감소가 이루어질 전망⁴⁾

- 2000년~2010년 연평균증가율(CAGR) 0.53%이던 인구증가율이 2010년~2019년 연평균 0.47%로 나타나는 등 인구증가 속도가 낮아지고 있음

- 이후 2028년까지는 0.05%의 속도로 증가하나, 2029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 매년 0.18%씩 감소가 이루어질 전망

* 장래인구(천명) : ('20) 51,781 → ('28) 51,942(최고치) → ('35) 51,630 → ('40) 50,855

[그림 1] 우리나라 인구 추이



자료 : 통계청(2017), 『장래추계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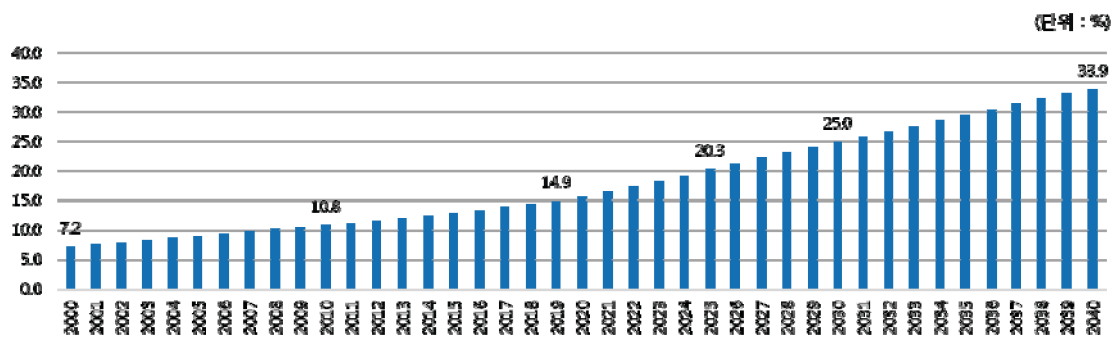
■ 인구감소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완만한 인구증가율에 비해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19년 기준 14.9%, 7,685천명)이 급격히 증가하여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음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합계출산율, 2017년 기준)』, 『인구동향조사(합계출산율)』

-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0년 3,395천명에서 2010년 5,366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8,125천명, 2040년에는 17,224천명으로 증가할 전망(CAGR 4.14%)
 - 고령층의 비중 또한 2000년 7.2%에서 2010년 10.8%, 2020년 15.7%, 2030년 25.0%, 2040년에는 3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65세 이상 인구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
- * 초고령사회 소요(년) : 한국(7), 일본(12), 독일(33), 이탈리아(21), 미국(16), 프랑스(29)⁵⁾

[그림 2] 고령인구(65+)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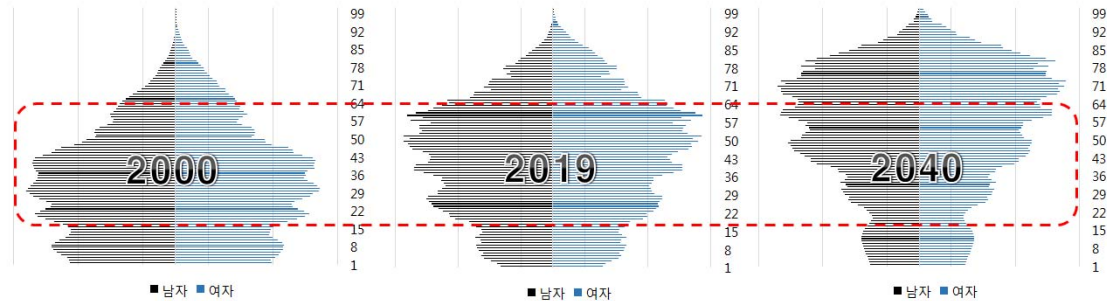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고령인구 증가는 곧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을 초래

- 우리나라 인구분포는 2000년 안정적 삼각형구조에서 2019년 현재 마름모꼴, 2040년에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되면서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감소될 전망
- 생산연령인구 비중의 감소는 곧 소상공인에게 지불 가능성(여력)이 높은 주요 소비계층의 감소를 의미

5) 황인창(2018),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그림 3] 생산가능연령 인구(15-64세)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인구절벽은 제1차 및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가속될 전망이다⁶⁾
 - 2019년 제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는 7,15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대다수 은퇴를 하여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음
 -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는 9,55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만 45세~55세로 근시일 내 은퇴가 이루어질 예정

〈표 1〉 생산연령인구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

구분	2000	2010	2020	2030	2040	CAGR
합계	71.8	73.1	72.1	65.4	56.4	-0.6
15-24세	16.4	13.3	11.3	8.7	6.4	-2.3
25-49세	42.2	41.7	36.9	32.5	28.1	-1.0
50-64세	13.2	18.1	23.9	24.2	21.9	1.3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나.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은 소상공인도 피하기 힘든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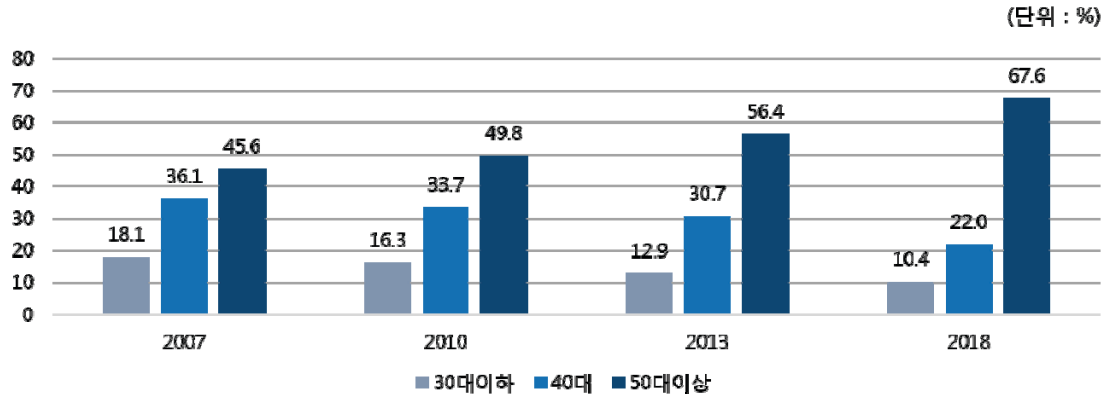
■ 소상공인 또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소상공인실태조사⁷⁾에 따르면, 2007년 45.6%였던 50대 이상 소상공인의 비중이 2010년 49.8%, 2013년 56.4%, 2018년 67.6%로 크게 증가함

6) 통계청 인구통계 및 조현승이동화고대영김승민(2017), “우리나라 각 세대의 특징 및 소비구조 분석-포스트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산업연구원)에서 발췌

7) 소상공인진흥원(2007; 2010; 20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통계청(2018) 등 총 4회 결과가 공표되고 있음

[그림 4] 소상공인 연령별 비중 추이



주 : 2007년과 2010년 결과 중 무응답을 제외하였음

자료 : 소상공인진흥원(2007; 2010; 20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통계청(2018)

- 고령화는 소상공인 유사집단인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에서도 나타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60세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49세이하 자영업자들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60세이상 자영업자의 연평균증가율은 3.2%를 나타내는 반면, 15~29세 자영업자의 경우 연평균 1.4% 감소, 30~39세는 연평균 3.3%감소, 40~49세 자영업자는 1.9%씩 감소하고 있음

〈표 2〉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8	CAGR
15-29세	3.3	3.6	3.3	2.8	2.8	2.6	2.9	-1.4
30-39세	16.0	13.8	14.2	14.1	13.4	12.9	12.3	-3.3
40-49세	29.7	29.0	28.0	26.3	26.8	26.1	25.5	-1.9
50-59세	28.3	29.9	30.3	31.3	30.9	30.6	30.0	0.7
60세이상	22.8	23.8	24.2	25.5	26.0	27.8	29.4	3.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다. 고령 소상공인의 현황⁸⁾ - 낮은 소득, 미래에 대한 준비부족

■ 고령 소상공인들은 소규모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60세이상 소상공인들은 평균 1.73명의 종사자를 고용하여 30대이하(2.26명), 40대(2.25명), 50대(2.05명)보다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음
 - 창업비용 또한 8,235만원으로, 30대이하(10,119만원), 40대(10,837만원), 50대(9,909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
- 사업체 운영 시 자기조달비중은 63.8%로 높은 수준이나, 매출액(연 135백만원)과 영업이익(연 18.9백만원)은 낮은 수준
 - 고령층 소상공인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8.3%로, 30대이하(16.6%), 40대(14.7%), 50대(15.2%)에 비해 높은 수준

〈표 3〉 소상공인 연령별 경영현황

(단위 : 명, 만원, %)

구분	종사자수	창업비용	자기조달비중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30대이하	2.26	10,119	54.6	21,461	3,552	16.6
40대	2.25	10,837	57.5	26,276	3,873	14.7
50대	2.05	9,909	60.1	22,297	3,379	15.2
60대이상	1.73	8,235	63.8	13,529	2,470	18.3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통계청, 『2018 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

■ 고령 소상공인들의 생산성은 낮으며, 무급가족종사자 의존도가 높음

- 창업교육 등 준비가 부족하고, 전자상거래 등 상거래현대화 수준도 낮음
 - 창업교육 경험이 있는 고령 소상공인은 7.6%에 불과하며,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경험이 없는 경우가 94.7%에 달하고 있음
- 영업시간도 상대적으로 적고, 무급가족종사자 영업시간은 크게 나타남
 - 고령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일수 24.9일, 일평균 영업시간 10.15시간으로 가장 적으며, 무급가족종사자(25.0일, 9.18시간)는 가장 많이 영업에 투입되고 있음

8) 2018년 실시된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통계청)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함

〈표 4〉 소상공인 연령별 영업현황

(단위 : %, 일, 시간)

구분	창업교육 경험있음	전자상거래 경험없음	사업주(사업체)		무급가족종사자	
			월 영업일수	일 영업시간	월 영업일수	일 영업시간
30대이하	21.4	94.1	26.4	10.32	24.8	8.74
40대	17.6	93.5	25.5	10.23	23.8	8.70
50대	12.8	94.2	25.6	10.25	24.7	8.55
60대이상	7.6	94.7	24.9	10.15	25.0	9.18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통계청, 『2018 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

- 또한, 고령 소상공인들은 프랜차이즈 등 조직화·협업화에도 매우 소극적이며, 고객의 기호변화에 대한 대응력은 부족

* 프랜차이즈가입 현황 : 30대이하(15.7%), 40대(11.2%), 50대(7.9%), 60대이상(2.1%)

* 고객 기호변화 어려움 : 30대이하(13.5%), 40대(14.1%), 50대(14.4%), 60대이상(18.9%)

■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여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 고령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률도 낮으며,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위험상황 발생 시 극복이 어려움

- 고용보험 가입률 14.2%, 국민연금 가입률 15.0%, 두루누리사회보험 가입률 7.9%에 불과하며, 산재보험 가입률 14.5%로 신체적 상해에 대한 대비도 부족

- 노란우산공제 가입수준도 낮으며, 정부지원 및 사업전환 등을 통한 환경변화 대응도 어려운 상황

-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15.1%, 사업전환계획 3.6%에 불과하며, 정부의 지원정책 경험(7.2%)도 적어 영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부족

〈표 5〉 소상공인 위험준비 및 미래대비 현황

(단위 : %)

구분	고용보험 가입	국민연금 가입	산재보험 가입	두루누리 가입	노란우산 공제가입	정부지원 경험	사업전환 계획
30대이하	25.9	28.4	25.8	14.8	26.5	18.9	4.9
40대	29.0	32.4	29.7	15.3	28.5	22.8	5.4
50대	22.7	25.6	22.8	11.2	25.4	14.2	5.0
60대이상	14.2	15.0	14.5	7.9	15.1	7.2	3.6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통계청, 『2018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

■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령화 진행과 함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변화관리 및 미래준비에 대한 희망은 존재

- 자영업자의 교육수준의 경우 중졸이하의 연평균 4.2%로 감소가 일어나는 반면, 대졸이상 자영업자는 연평균 3.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중졸이하 자영업자 비중은 22.1%에 불과하며, 대졸이상의 자영업자 비중이 36.4%에 이르고 있음

〈표 6〉 자영업자 교육정도별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18	CAGR
중졸이하	31.1	30.8	29.3	28.2	24.2	22.5	22.1	-4.2
고졸	41.6	42.3	41.7	42.0	42.1	42.6	41.5	0.0
대졸이상	27.2	27.0	29.1	29.9	33.8	34.9	36.4	3.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가. 고령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 우리나라는 OECD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임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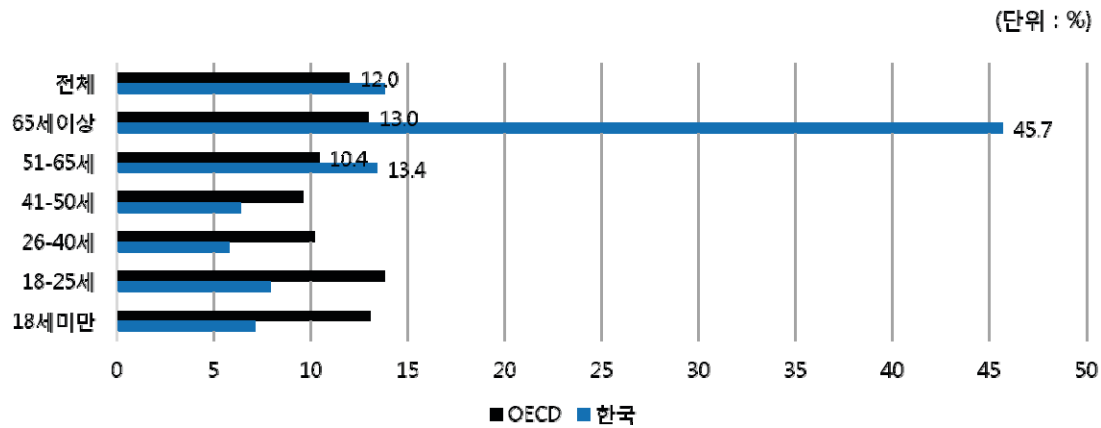
- OECD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65세 초과 연령집단의 빈곤율은 45.7%¹⁰⁾로 같은 연령대 OECD 평균(13.0%)보다 약 3.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고령층의 절대빈곤율(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인구의 비율)은 약 30%로 나타남
 - 고령층은 낮은 소득 외에도 높은 부채의 부담이 있는데, 60세 초과 연령집단의 가계부채비율은 금융자산의 73%로 전 국민의 64%에 비해 높게 나타남
 - OECD는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고 노후를 위한 재정적 대비를 하지 않은 것과 사적지원 및 공적지원¹¹⁾의 취약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음

9)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10) 국민연금연구원(2019)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자산을 연금화해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자산까지 합친 빈곤율은 29.3%(2016년 기준)로 낮아지나, 이 또한 OECD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11) 2017년 우리나라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 수급률 33.8%, 2016년 기준 기초연금(20만원)은 평균 임금의 5.5%, 2015년 고령층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 6.4%에 불과 등(OECD)

[그림 5] 우리나라와 OECD 빈곤율 비교(2015년 기준)



주 : 상대빈곤율은 가구의 자산 및 부채와 관계없이 소득이 전 국민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비율로 측정함
 자료 :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

■ 고령층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평균의 73.3% 수준으로¹²⁾, 고령층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 분야에의 소비감소 또한 예상됨

- 가구주 60세이상 고령층가구의 가구원수는 전체평균인 2.43명보다 낮은 2.13명을 보이며, 이는 고령층가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임을 의미함
- 2018년 기준 고령층가구의 월평균 가계지출은 2,369천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인 3,327천원의 71.2% 수준임
 - 고령층가구의 가계지출 중 소비지출의 경우 1,860천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인 2,538천원의 73.3% 수준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 중 고령층가구의 지출이 높은 품목은 식료품·비주류음료(106.0%), 보건(115.3%) 등으로 나타남
 - 한편, 60세이상 고령층가구 가구원수는 2.13명으로,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어 적은 지출규모 형성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39세이하 가구(2.15명), 40~49세 가구(2.93명), 50~59세 가구(2.64명) 등

12) 통계청(2018), 『가계동향조사』

〈표 7〉 고령층가구의 항목별 가계지출

(단위 : 명, 원, %)

구분	전체가구(A)	고령층가구(B)	금액차(A-B)	지출수준(B/A)
가구원수	2.43	2.13	0.30	87.7
가구분포	100.0	31.0	69.0	31.0
가계지출	3,326,764	2,369,185	957,579	71.2
소비지출	2,537,641	1,860,028	677,613	73.3
식료품·비주류음료	366,672	388,518	-21,846	106.0
주류·담배	35,028	24,392	10,636	69.6
의류·신발	152,206	97,068	55,138	63.8
주거·수도·광열	285,461	241,181	44,280	84.5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17,115	90,009	27,106	76.9
보건	191,120	220,415	-29,295	115.3
교통	348,808	220,248	128,560	63.1
통신	134,107	88,569	45,538	66.0
오락·문화	191,772	118,859	72,913	62.0
교육	173,372	31,397	141,975	18.1
음식·숙박	349,699	201,168	148,531	57.5
기타상품·서비스	192,282	138,205	54,077	71.9
비소비지출	789,123	509,156	279,967	64.5

자료 : 통계청(2018), 『가계동향조사』

나. 고령화에 따른 소상공인 업종별 영향 전망

■ 고령화에 따른 소비감소는 소상공인 밀집업종에서 크게 나타날 전망

- 고령층의 소비지출 감소는 소상공인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도·소매, 오락·문화, 음식·숙박,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주류·담배(69.6%), 의류·신발(63.8%), 주거·수도·광열(84.5%), 가정용품·가사서비스(76.9%), 교통(63.1%), 통신(66.0%), 오락·문화(62.0%), 교육(18.1%), 음식·숙박(57.5%), 기타(71.9%) 등은 고령층가구의 지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도·소매업 소상공인은 89.7만개(26.7%), 숙박 및 음식점업 64.9만개(19.3%), 개인서비스업 37.3만개(11.1%) 등 총 57.1%의 소상공인이 해당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 생활밀접업종은 전통적으로 소상공인 과당경쟁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진입과 퇴출이 빈번히 발생하는 다산다사의 구조를 보이고 있음¹³⁾

- 이들 업종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로, 고령화에 따른 소비감소가 소득수준 악화를 불러올 전망
 -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2010년대비 2015년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해당 소상공인의 재정상태 또한 열악해질 것으로 판단됨
 - 고령층가구의 가구분포는 전체의 31.0%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해당 업종 소상공인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표 8〉 고령층 소비감소 분야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단위 : 백만원)

산업분류	2010년(A)	2015년(B)	B-A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3.1	14.1	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9	16.8	-2.1
숙박 및 음식점업	22.3	18.8	-3.5
교육 서비스업	21.1	16.3	-4.8
도매 및 소매업	38.0	25.1	-12.9
전산업	29.0	25.1	-3.9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 반면, 고령층의 소비가 증가하는 업종은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으로,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질 전망
 -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에서 고령층의 소비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나,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아직 부족한 상황
 -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식료품·비주류음료 제조 소상공인은 53,814개로 전체 소상공인 중 1.6%에 불과하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또한 59,839개로 1.8%에 불과한 상황
 - 지출여력이 있는 고령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대응해야 하는 소상공인은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
 - 식료품·비주류음료의 경우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보다 유망한 실버산업으로 볼 수 있음

13) 정완수·전인우(2019),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 -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중소기업포커스』, 제19-13호, 중소기업연구원

- 식료품비주류음료 제조업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2010년 27.2백만원에서 2015년 24.9백만원으로 감소(-8.5%)한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는 59.0백만원에서 67.2백만원으로 증가(13.9%)하여 보다 유망한 산업으로 나타남

〈표 9〉 고령층 소비증가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

(단위 : 백만원)

산업분류	2010년(A)	2015년(B)	B-A
식료품비주류음료 제조업	27.2	24.9	-2.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9.0	67.2	8.2

자료 : 통계청, 『경제총조사』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실버산업에 주목할 필요

- 실버산업은 노인이나 노후대비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한 산업으로, 크게 금융, 여가, 의료 및 보건, 주거관리, 노인용품·서비스 등 산업으로 구분됨
-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이 취급 가능한 실버산업 분야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
 - 특히 여가활동부문, 재가서비스, 의류·식품·생활용품·서비스와 같은 노인용품 등 부문들은 소상공인도 참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표 10〉 실버산업 유형과 분야

구분	부문	예시분야
금융	상품	공적연금, 사적연금, 부양연금, 노후대비 연금형보험 등
	서비스	신탁, 부동산관리 등
여가	여가활동부문	회고록 출판, 논문 발표회, 출판기념회, 우편물발송대행, 집필대행, 잡지출판, 스포츠, 취미생활, 오락, 관광 등
	사회활동부문	취업, 교육, 직업알선 등
의료/보건	병원부문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 치료병원 등
	제약부문	노인성질환 약품, 의료전문기기, 간호용품 등
	의료정보부문	병원관리, 의학정보, 건강체크 프로그램 등
	인력파견부문	의료요원 알선 및 파견 등
주거관리	주거시설부문	유료양로원, 3세대주택, 주택계량, 실버타운 등
	재가서비스	간호서비스, 급식서비스, 간호용품 렌탈서비스, 청소 및 세탁 대행 등
노인용품	의류부문	일상복, 정장복, 환자복, 스포츠의류, 기타의류 등
	식품부문	건강식품, 기호식품, 치료식, 예방식 등
	생활용품부문	가전제품, 일상용품, 가정의료용품, 의료보조용품 등
	서비스	실버시터, 노인전문 음식점, 노인카페, 실버전용 사이트 등

자료 : 임춘식(2010) 「실버산업의 유형과 장기적 전망」, 『서울경제 경제포커스』

■ 고령층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와중에도 그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뉴실버 세대¹⁴⁾를 주목할 필요

- 뉴 실버세대는 기존 실버세대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과 축적된 부를 가진 세대로,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추구하며 이에 대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어 소상공인에 새로운 시장기회가 될 수 있음¹⁵⁾

-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활용률이 높고,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며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적 생활양식, 패션, 스포츠, 소비주체, 단독, 여행, 고품질 선호, 여유, 부가가치 중시 등 소비행동을 보임

* 베이비붐세대 가계 소비지출 236.0만원, 노인(非베이비붐세대)가계 소비지출 108.8만원¹⁶⁾

- 소상공인들은 기존 고령층과는 다른 뉴 실버세대의 특성을 파악하여 소상공인 분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접근성 강화 및 요구충족을 위한 변화관리 노력 필요

4. 정책 시사점 - 소상공인 대응방향

■ 고령 친화적 산업으로 창업 및 사업전환 유도

- 고령층 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은 감소하나, 식료품비주류음료, 보건 등품목에 대해서는 지출을 늘리고 있으며, 교통, 음식·숙박 등 품목에 아직까지 높은 비중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창업교육이나 컨설팅, 사업전환, 정보제공 등 정부정책을 통한 지원 시 고령층 소비자들의 지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산업에 집중할 필요

- 또한, 여가, 재가, 노인용품, 요양, 의료·보건, 자산관리, 한방 등 전통적인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한 창업·사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예 : 노인용 의료기기, 실버타운·고령휴양단지, 노인관광, 한방화장품, 은퇴농장 등

14) 삼성경제연구소(2011)는 건강, 여유있는 자산, 적극적인 소비의욕을 가진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대두되며, 이들은 기존의 시니어 세대와는 다른 소비형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뉴 시니어(New Senior)로 지칭하기도 하였음

15) (사)스마트미디어학회(2013), 「뉴실버 세대를 위한 융합형 생태계 조성에 관한 연구」

16) 이지영, 김도성(2015), 「베이비붐 세대 가계의 소비지출특성과 패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통권69호

■ 공유경제/협업 활성화를 통한 소규모 사업장 영업비용 절감

-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총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며, 절대적인 매출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노력 필요
 - 숭인숍(shop-in-shop), 주방공유, 공동구매, 공동배송 등 공유경제를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영업비용 절감 필요
 - 공유경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유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며, 정부는 시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활동할 수 있도록 발판 역할을 수행할 필요
- 또한, 소규모화 되어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동시설 및 장비를 통한 공동제조, 공동네트워크,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및 판매 등 영업비용 절감을 위한 협업사업의 지원을 확충할 필요

■ 고객 맞춤형 경영을 위한 전문성 강화

-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은 (수요자)소비자(공급자)소상공인 모두 소규모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객기호의 적합한 대응을 위해 맞춤형 영업방식(customizing) 필요
 - (소공인) 고객주문에 기반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3D프린팅 기술·생산 지원, 정책자금을 활용한 제품기능 및 생산공정 개선 등 작업환경개선 지원
 - (소상인) 小分 등 상품·서비스의 구성 및 유통,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의 고객과의 사전협약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에 기반한 고객접점관리(MOT) 시스템 지원 등
- 정부는 소상공인들과 소규모 고객들의 접점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소상공인 간 매칭시스템(market-place) 마련하여 보급
 -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간 연구회나 정보공유 등 자발적 활동을 지원
 - 소규모 소상공인들은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니즈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업종별·지역별 협동조합 등 협업체계 강화 필요

■ 고령 소비자를 위한 접근성 제고

- 보행약자인 고령 소비자의 경우 행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동선·행동유형을 고려한 상권개발 및 관리 필요

- 노인들의 천국(原宿)이라 불리는 일본의 스가모(巣鴨)시장과 같이 가독성이 높은 안내판과 간판 설치, 도로 턱(인도 턱) 제거, 벤치 등 휴게시설, 심장제세동기와 같은 응급처치 장비의 비치 등 고령 소비자들을 배려한 상권조성 필요
- 제1, 2차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경우 고령층에 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디지털에 익숙한 뉴 실버세대로, 디지털을 활용한 영업활성화 촉진 필요
 - 스마트기기 등 온라인 주문에 익숙한 新고령층 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객홍보, 주문, 판매, 결제, 배송 등 서비스 분야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 소상공인 고령화를 위한 준비도 필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 또한 고령화·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들 소상공인에 적합한 교육·컨설팅 및 조직화 실시
 - 젊은 층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기법들이 고령 소상공인들에게는 어려운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결제방식 등 디지털 활용방안 지원
 - 최신 트렌트 등 고객의 수요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등 조직화를 통한 체계성 강화 및 고객확보 원활화 등 지원
- 고령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위험준비 지원
 - 두루누리사회보험, 노란우산공제, 산재보험 등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적·신체적 안전망 확보 강화 필요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11), 「뉴시니어 세대의 3대 키워드」, 『SERI 경영노트』, 제96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통계청(2018), 『전국 소상공인실태조사 시험조사』.
- 안서연(2019), 「노인의 경제적 자원 현황과 빈곤 : 소득과 자산을 중심으로」, 『연금이슈 & 동향분석』, 제56호, 국민연금연구원.
- 이지영, 김도성(2015), 「베이비붐 세대 가계의 소비지출특성과 패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통권69호.
- 임춘식(2010), 「실버산업의 유형과 장기적 전망」, 『서울경제 경제포커스』, 03월호, 서울연구원.
- 정완수·전인우(2019),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 -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중심으로」, 『KOSBI 중소기업포커스』, 제19-13호, 중소기업연구원.
- 조현승·이동화·고대영·김승민(2017), 「우리나라 각 세대의 특징 및 소비구조 분석-포스트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황인창(2018), 「인구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KiRi리포트』, 제452호, 보험연구원.
- (사)스마트미디어학회(2013), 「뉴실버 세대를 위한 융합형 생태계 조성에 관한 연구」,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 OECD(2018), *Economic Surveys: Korea 2018*.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발행인 : 김동열

편집인 : 전인우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인쇄처 :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